

2019년 10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10월 30일(총 3매)

걱정이 없으셨고 안심하고 소비하세요

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

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·점검 지속 추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·보완하고자 '19.4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방역점검

○ 6개월 간의 점검을 통해 확인된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그간 개선조치를 추진해 왔으며, 226건(36%)은 보완 완료, 나머지 대상은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 중

○ 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, 사례별로는 소독 미흡이 가장 많았고(230건, 35%), 울타리·전실 등 방역시설 미흡(187건, 29%), 출입·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(187건, 29%)이 주요 사례로 확인

○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비중이 높았고,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·분뇨업체가 가장 많음

◆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·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·보완할 계획이며,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·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

○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, 철새 도래 증가 등 위험 시기로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,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·보완하고자 2019.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(총 6,791개소*)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,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가금농가 5,479호와 도축장·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,312개소

○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*(36%)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,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.

* 가금농가 147호와 축산시설 79개소에서 소독 관리, 방역기록, 시설 등 개선

□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.

○ (법령 위반)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,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,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

*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 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,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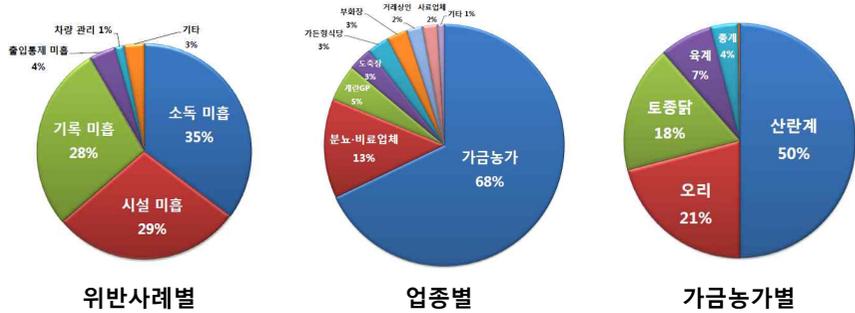
○ (현지도) 소독제 사용·관리 미흡, 농가 울타리·전실·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,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

○ (사례별)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,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(35%)으로 가장 많았고, 울타리·전실·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(29%), 출입·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(28%)

* 이외 출입통제 미흡 26건, 축산차량 또는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29건

○ (업종별) 가금농가(444건, 68%)와 분뇨처리·비료생산업체(87건, 13%)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,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음

<< 2~3분기 AI 방역점검결과 분석 >>



-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·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·보완할 계획이며,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·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.
- 또한,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, 임대농가, 전통 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·점검을 추진한다.
- 농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형)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,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% 증가('18.10월 455천수 → '19.10월 611천수)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필수 방역수칙 >

- 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
- ② 축사별 장화(신발) 갈아신기
- ③ 그물망, 울타리,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
- ④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
- ⑤ 매일 축사 내·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
- ⑥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금지